

< 2023년 교회표어 >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행 2:46-47)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 사도신경

- 찬 송 268장

1.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 기 도

- 성경본문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삶 나누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초연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속상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집 뜰 모닥불 앞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던 자기 내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의지하지만 그 의지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기를 목격하면서 속이 터져서 울었던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체고,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데 그것을 놓칠까봐 염려된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온 것 때문에 혹시 고통을 당할까봐, 자기가 진실을 말하면 혹시 일이 꼬여버려 죽을지도 모르기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지만 의지한대로 살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고통의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묶여있었던 모든 것에서 놓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는 여태까지 자신을 묶었던 모든 것에서 놓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실제로 믿으니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어찌지?'라는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칼끝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니 신뢰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베드로 안에 그를 묶고 있던 것들을 풀어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목청 높여 증거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한 사람에게 깨달아 질 때, 그는 진짜로 자유해집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유! 세상의 온갖 것들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온갖 악한 힘에 눌러 신음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증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포나 명령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주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실제로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복음 더하기 알파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다시 메입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자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꾸 그 자유를 반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적인 자유의 딜레마(dilemma)입니다. 참된 자유는 솔직히 위험해 보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한 것이 멋져 보이지만, 현실로 들어오면 위험해 보이고 왠지 모험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갖고 율법도 갖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복음 더하기 알파를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알파에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알파를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직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묶고 있고 얽매고 있는 것들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자로서 이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말씀 나눔

1. 무엇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나요?
(2쪽 하단)
2.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묶고 있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해준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십시오. 혹시 없다면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열망하시는지요?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